민족문화연구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2” 특집의 말

일본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은 김재로 및 그 후손에 의해 편찬된 조선 후기 최대의 금석문 탁본첩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96호에 이어서 『금석집첩』에 대한 공동 연구 성과를 특집으로 구성하였다.

박철상은 『금석집첩』 탁본첩의 찬집에 대한 기존의 오류를 바로잡고 『金石集帖』의 성격을 명확히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와 관련된 탁본첩 『金石錄』 및 목록집 『金石錄』을 재검토하고, 탁본첩 『金石錄』과 『金石集帖』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과 탁본첩 『金石錄』은 김재로가 찬집하였고, 목록집 『金石錄』은 김재로가 1차 정리하고 그의 후손들이 2차 增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목록집 『金石錄』에 의거하여 탁본첩 『金石集帖』이 제작되었는데, 탁본첩 『金石集帖』의 제작을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현 단계에서 『金石錄』과 『金石集帖』은 별도의 금석문 탁본첩으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병삼은 『금석집첩』에 수록된 불교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신라 고려의 불교자료의 종류는 『금석청완』이나 『대동금석서』와 같은 다른 금석집보다 적지만, 조선시대 불교 자료는 『금석집첩』 수록 자료가 월등하게 많음을 지적하였다. 『금석집첩』에는 새로운 비문인 용연사 松坡大師碑 등 조선시대 僧碑와 事蹟碑 10종의 신자료가 수록되었고, 비문의 내용은 알려졌지만 탁본이 처음 알려진 자료로 보현사 玩虛大師石鍾銘 등 11종이 있음을 밝혔다. 『금석집첩』 수록 불교 자료는 새로운 내용과 탁본을 전해주는 자료가 20여 종이나 되어 그 자료 제공의 의의가 크고, 특히 원형에 가깝게 편집함으로써 비의 원모습을 충실히 보여주는 양질의 탁본 자료라는 점에서도 그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정우봉은 『금석집첩』에 수록된 武人 자료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무인과 관련된 자료는 ‘武將/武臣’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144책에서 148책까지 36명을 집중적으로 수록하였다. 아울러 ‘武將/武臣’ 항목 이외에 『금석집첩』

내의 여러 곳에 25명에 이르는 무인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 조선시대 인물들이며, 일부 삼국통일시대와 고려시대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60여 명에 이르는 武人 자료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전근대 武人의 삶과 행적을 복원하고 그 가치를 재해석하며, 武人들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특질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난 호에 이어 구성된 이 특집을 통해 『금석집첩』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